

현대차 “화재 위험 시내버스 구조 개선할 것”

광주시 “광산구 사고, 터보장치·흡입밸브 인접해 화재 가능성”

현대차, 공식 결합 인정은 부인...4일 워크숍 참석 의견 수렴

현대자동차가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시내버스 엔진룸의 구조 개선을 전액 지원,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가 제작·공급한 광주 시내버스 특정 차종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 12일 1면)을 받아들여 구조 개선 사업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슈퍼에어로시티(유로 5) 차종 중 엔진룸 터보 장치에 격리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차량에 대해 격리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현대자동차측 입

장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대차측은 오는 4일 열릴 ‘광주 시내버스 혁신 워크숍’에서 시내버스 업체 10곳과 정비인력 등을 상대로 이같은 개선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구조개선 내용과 시기 등을 확정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현대차 측이 제작·공급한 유로 5 시내버스 차종의 경우 엔진룸 터보장치와 가연성 소재로 된 흡입밸브 등 장치가 인접하게 설계 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운행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버스 운행시 온도가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엔진룸 터보장치에서 오일이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로 된 흡입밸브 등으로 흘러내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광주시는 분석했었다.

광주시는 유로 5차종 이후에 현대차가 출시한 버스과 대우차가 제작한 버스의 엔진룸을 비교한 결과, 유로 5 차종만이 터보장치와 고무로 된 흡입밸브 사이에 격리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광산구 목련마을 앞 도로에서 일어난 시내버스(37번·현대차 유로 5차종) 화재도 엔진룸 터보장치 파손으로 인한 오일 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광주시는 잠정 결론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이용객이 47만명에 달하는 시내

버스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 현대차 측에 보냈고, 최근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현대차 입장을 전달받았다.

현대차 측은 “터보장치 파손으로 흘러내린 오일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며 구조 결합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현대차가 제작한 시내버스에 대해 터보장치와 가연성 소재를 분리시키는 격리장치를 설치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광주시에게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엔진룸 정비를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해질 19:00

달출 20:42
달짐 08:37

여름과 가을사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

광주	22/29	보성	가공호리고비	20/26	
목포	구름많음	22/26	순천	가공호리고비	21/28
여수	가공호리고비	22/25	영광	구름많음	20/28
나주	가공호리고비	19/29	진도	구름많음	21/28
완도	가공호리고비	22/27	전주	구름많음	21/28
구례	가공호리고비	20/29	군산	구름많음	21/26
강진	가공호리고비	21/27	남원	가공호리고비	20/28
해남	가공호리고비	21/27	흑산도	구름많음	22/25
장성	가공호리고비	19/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서~북 0.5~1.0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0	북서~북 1.0~1.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서~북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52	09:00
	16:12	21:17
여수	10:44	04:27
	23:06	16:40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22/29	21/28	20/30	20/27	21/28	19/27	18/27

◇생활지수

	경고
	10
	20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 폄하’ 지만원씨 고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5월 관련단체 회원들이 지난 31일 광주지법 앞에서 5·18을 왜곡하고 사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만원(73)씨를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87년 정평위가 제작한 5·18 사진자료집을 북한과 대통령 만든 자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광주인권상 ‘숨바스 숨폰’ 구출 서명 8700명 동참

5·18재단 내달 국제기관 전달

5·18 기념재단은 올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3년 전 실종된 라오스 농업과학자 숨바스 숨폰(Sombath Somphone) 구출 서명운동에 8700명이 동참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여일간 숨바스 숨폰에 대한 구출 서명운동을 한 결과 모두 87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5·18 기념재단은 다음달 초 유엔과 라오스 정부, 주한 라오스 대사관 등 국제사회 주요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숨폰이 수상자로 확정된 지난 5월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에서 발의됐으며 광주기독교단협의회·천주교광주대교구·5월 관련단체 등 협조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됐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그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라오스 당국이 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숨바스 숨폰은 참여개발훈련센터(PADETO)를 설립,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개발하며 빈민 구제를 위해 노력했고 2005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15일 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경찰이 소행 트럭에 태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경찰 ‘몰카용 카메라’ 불법화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계기로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1일 강진형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전파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에 대한 별도의 제조·판매·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카메라의 모숨을 피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소년 성폭력 3년새 2배 늘었다

전남 2.3배·광주 1.3배...초·중생 사건 비율 전체 75%

전남지역의 학생 간 성폭력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이 기간 1.3배가 늘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2012~2014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12년 39건, 2013년 31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28건, 2014년 37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생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 대비에서 지난해 1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건에서 79건으로 7.9배, 울산은 12건에서 44건으로 3.7배, 경남은 32건에서 104건으로 3.3배, 제주 4건에서 13건으로 3.3배 늘어나는 등의 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가해학생의 연령 또한 점점 어리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이 지난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심의된 사건 중 초등학교는 533건으로 18.1%, 중학교는 1672건으로 56.7%, 고등학교는 678건 23%로 초·중학생 사건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도 학교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부는 가해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지 일관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중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신 개발지 뜨는 지역 집중분석 -

99% 성공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로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 소액투자자로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
- 아파트의 향후 시장분석과 전망
- 남악 신도시 도청 2차 오피스타운의 분석과 전망
- 주택의 급변하고 있는 슬리시도의 미래까지 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9. 1(화),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원동 68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지구 북광주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감사
광주권 교육권 외곽교수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

김영은 회장 (1부)

박동익 대표 (2부)

-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대표
- (주)매남농정 대표이사
- 토지 실전 전문가